

## 후쿠시마로부터의 감사 메시지 2019년 3월 11일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미에에 위치한 우케도 초등학교에서 열린 성인식에 참석한 요코야마 와카나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강타한 후쿠시마에 용기를 북돋아주기 준다는 사명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준 후쿠시마에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97회 일본 전국 고등학교 축구 시합에서 3위를 기록한 쇼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메노 이츠키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본대지진과 그로 인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사고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시간이 멈춰버렸던 후쿠시마에도 아이들의 웃음이 되찾아왔습니다.

전국 식수제에서 여러분이 희망으로 심어준 묘목은 아주 빠르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여행객이 방문하셔서 후쿠시마의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에 담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젊은이들도 스포츠와 문화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재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신 후쿠시마와 전 세계의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노고와 지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립니다.

이런 진척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에는 아직 피난권고가 남아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피난민의 수는 최대 피난민의 4분의 1로 감소했지만, 4만명이 넘는 주민이 아직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악성 루머도 과다합니다. 우리는 아직 원자로 폐기처분에 대한 긴 여정 중에 있지만 재난의 기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상황을 생생히 전달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상충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모아 남아있는 장애물을 넘고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후쿠시마의 재기와 발전에 있어 방관하기보다는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도쿄에서 현장학습을 온 고등학생 이시이 타카나오씨가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많은 지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슬프게도 작년에는 일본 전국에서 연속적인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은혜를 갚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몇 년간 만들어 온 끈끈한 유대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일본의 다른 지역에게 선의를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세계에는 우리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가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후쿠시마가 더 강해지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배우 니시다 토시유키씨

“따가닥 따가닥 말굽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을 탄 용감한 사무라이의 미소를 보고 있습니다.”  
코리야마 특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코구레 마코씨와 그녀의 어머니 유코씨.

곧 새 시대가 열릴 것 입니다.

한동안 멈춰있던 철도가 다시 움직임으로써 떠나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곧 후쿠시마 로봇 테스트 필드가 오픈 합니다. 드론과 같은 발전된 로봇 기술을 활용해 힘든 환경에서도 앞으로 전진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젊은 층 주도의 커뮤니티와 후쿠시마 농작물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실은 잡지를 편집하는 후쿠시마 고등학생들과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도 지속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부흥을 향한 저희의 노력은 다음세대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후쿠시마를 만들어준 선조들과 지역 부흥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후쿠시마에 대한 자긍심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기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연대감을 소중히 여겨 다음세대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이며, 이곳은 희망과 긍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서, 이곳에 올 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고.

2019 년 3 월 11 일

후쿠시마현 지사,우치보리 마사오